

David Turner 박사, 요한복음, 세션 18,

요한복음 16:16-17:26

© 2024 데이비드 터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이 David Turner 박사와 요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18회 고별 담화, 슬픔에 대한 가르침, 마지막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6:16-17:26.

고별 담화에 대한 네 번째이자 마지막 비디오인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 담화를 말하자면 서문으로 구성된 담화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종의 가치관을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지금 그들에게 참된 겸손의 본질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으며 그들은 기꺼이 겸손하게 서로 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장 31절 끝에서부터 1633년까지의 고유한 담화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후주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용어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설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재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이 그들을 위해 참된 겸손의 본질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의 발을 씻는 것은 또한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영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준비시킬 영에 대해 가르치고, 그들과의 관계를 마무리하면서 중보의 기도로 그것을 인봉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고별 담화를 보는 전반적인 방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담화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16장 중반에 있으며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이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에 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닥쳐올 박해에 대해 현실적으로 말씀하셨으며, 동시에 성령께서 그들의 삶에서 그들을 도우실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한 증언. 이제 그분께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것이며, 원하신다면 그분의 수난에 따라 그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의 일에 관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 생각에 16장 16절에는 다소 과도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NIV 번역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연히 빨간색 글자로 된 성경을 사용하면, 내가 그걸 완전히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때로는 유용할 때도 있습니다. 1616년부터 14장과 22절까지 되돌아보면 마지막 검은 글자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편지. 이곳은 가룟인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왜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시며, 왜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시느냐고 묻는 곳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그 이후 14:23부터 예수님은 방해나 질문이나 어떤 일도 진행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14장의 마지막 부분인 31절에서 위치에 대한 전환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이제 오라, 떠나자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 중이지만 우리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게 어디일지. 그래서 우리는 꽤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유다의 질문 이후로 이제 1616년은 담론의 다음 부분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여기 계시다면, 잠시 후에 당신이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미래와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를 전환시키고 그분의 안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까지 해왔던 일을 하고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개되는 방식을 주목한다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방금 16:16에서 주신 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짓, 얼굴 표정, 어깨를 으쓱하고 서로 속삭이는 모습을 통해 그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잠시만요 무슨 뜻인가요?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점을 잘 알고 계시며,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이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서로 묻느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고 그 후에 조금 후에 나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16장의 이 부분의 첫 부분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 점점

더 분명해지고, 그의 말씀에서도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일은 28절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서 와서 세상에 왔노라.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따라서 이러한 ABBA 유형의 평행법을 사용하여 예수께서는 자신이 떠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는 그들 측에서 대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이에 응답하셨고, 이제 29절과 3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비유적 표현 없이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29절에 나오는 비유적 표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10장에서 본 것과 같은 단어인 파로이메아(paroimeia), 비유적 언어, 우화, 비유적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물을 것도 없으심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격려적인 반응으로 이제 우리가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했으므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당신을 믿고 싶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들이 질문을 하는 것과 그가 대답하는 것 사이에서 일어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정말로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 약간의 태도를 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 확실히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말하자면, 그분은 계속해서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지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5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차린 언어의 유형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일종의 실현된 종말론이 진행됩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으니 너희가 흠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박해에 대한 현실화된 종말론을 하고 계십니다. 장래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시간이 이미 다가왔습니다. 각각 자기 집으로 나를 혼자 두라.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 생각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전체의 최고조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실 때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 복음서와 요한복음 전체에서 중요한 요한복음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시 와서 그것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17장으로 갑니다. 이 기도는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관점에서 아버지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재차 강조하시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17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그분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 직접 기도하십니다. 6절부터 19절까지에서 그는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원래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 그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흐름입니다. 구조적인 면에서 우리는 이미 방금 언급한 바 있는데, 아마도 이것이 예수께서 1615년까지의 박해 기간 동안 성령의 증언과 그들의 증언에 관해 말씀하셨다는 점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1616년에 과도기적 진술을 합니다. 즉, 여러분은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며 그 후에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모호함과 감정에 반응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16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잠시 나를 보지 못하다가 그 후에 나를 보리라 하시니 곧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으니라. 그것은 꽤 잘 결론에 도달하여 그들을 만족시키고 그들은 그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번에도 그는 그들의 의견에 응답합니다.

따라서 그의 반응에는 모호함과 명확성이 부족하여 사람들이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명확성이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명확성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는 명확성이 부족한 것에 응답하고, 달성된 명확성에 응답하고 상황에 대해 매우 현실적으로 다시 말하고 17장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시 한 번 추가 연구를 통해 주목하고 집중하고 싶은 핵심 아이디어 중 일부는 슬픔의 현실입니다. 1616년에 이미 16절 6절에서 내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너희가 근심하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신은 내가 떠난다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가 말한 사실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20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그 주제로 돌아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할 때라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가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날 당신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22절에서 너희가 근심하고 애통해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고 기뻐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해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예수께서 부활 후에 그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아마도 그가 그보다 더 지속적인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날에는 당신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다소 개방적인 발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는 예수께서 부활 후에 그들을 개인적으로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해 많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성령을 통해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심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 이후의 비교적 짧은 기간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볼 것이기 때문에 그 슬픔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은 그와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만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 또 다른 부분은 그가 성령을 통해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함께 박해의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6장이 끝날 때 박해에 대해 꽤 많이 읽습니다. 15장의 후반부에서 살펴본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16장 32절에서 이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하십니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흩어질 때가 이르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 일어날 일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8장의 다음 비디오에서 그것에 대해 읽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각각 자기 집으로 흩어지리라. 당신은 나를 완전히 내버려 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을 때가 옵니다. 그들은 혼자인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을 통해 그들과 함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흩어졌을 때 예수님도 혼자 계시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혼자 남겨두셨던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흔히 평화라는 단어를 마치 평화란 어떤 혼란이나 투쟁,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삶의 문제들만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에

대해 말씀 하실 때 그것은 확실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계속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문제가 없거나, 어려움이 없거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와 고난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모순하시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평안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but을 넣고 싶은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당신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줄을 너희가 깨달으면 너희가 환난 중에도 평안할 것이라고 말하여 담대하라.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슬픔과 박해의 현실을 마음의 평화의 현실과 결합시킵니다.

이 모든 시련 속에서도 당신은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이미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과 14장 1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와 함께 있는 자들은 너희가 그를 알지니 너희 안에 있을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27절은 사실 제가 그들의 사과를 구하고 있던 구절이었습니다. 평화 나는 당신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떠나세요.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나는 세상이 주는 것만큼 너희에게 주지 아니한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므로 14장 1절의 권고를 27장과 28장의 권고와 연결하고 16장 33절을 연결하면 안정된 마음, 하나님께

고정된 마음이 찢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의 기복에 따라 앞뒤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의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승리의 현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오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현실은 내가 믿는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복음서와 서신서, 심지어 묵시록의 다른 곳에서도 보게 될 요한의 주제이기 때문이다. 이 주제를 추적하는 데 잠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라 담대하라 하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으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 다음 예수님은 죽음과 장사됨, 부활을 통해 세상을 이기시고, 20장에서 그들을 성령으로 무장시켜 그들이 세상에서 그분을 잘 섬길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전부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은 다음 요한의 편지, 특히 요한 1서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복음과 편지 사이에 개념적으로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의 말씀과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당신이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요한 1서가 이기는 개념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어로 동사 nikao 와 명사 nikkei 에 대한 아이디어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 신 Nike, 즉 승리의 신의 여신으로 돌아가서 전투를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아이디어를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특히 5장을 볼 때 우리는 신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난 자니 양해하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녀도 사랑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알느니라.

사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의 계명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니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라. 우리의 믿음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첫째 편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취하신 승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예수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때때로 나는 이것이 세상을 이긴 어떤 슈퍼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기는 자들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별한 수준의 믿음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수준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의 상류층과 같습니다. 이것을 군사적 용어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특수 부대입니다.

그들은 그린베레이다. 그들은 무엇이든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것에 대해 말하는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승리에 참여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따르면, 묵시록에도 이기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5장 5절에서도 그러한 참고 자료를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실에서 본 환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교회를 대표하는 다양한 천사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24장로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중 하나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울지 말라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구약의 많은 이미지가 승리한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계통을

보십시오. 물론 여기서 5장 5절에 승리했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떼실 수 있는데 그것은 일곱 인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 보낸 거의 모든 편지의 결론을 보면 우리는 상기하게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곱 편지 모두에서 이기는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연구하고,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추어 볼 때, 예수께서 세상을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그가 세상을 이기셨다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 라는 용어에 대해 생각할 때 종종 우리는 그것이 태양계일 수도 있고 행성일 수도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 라인을 따라 물질이나 일종의 공간적 실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아마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세계가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때때로 존재하더라도 John의 초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초점은 세상이 윤리적인 실체라는 노선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것은 윤리적 배움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나쁜 윤리적 배움을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의 복합체인 시스템의 일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에서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계신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도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으며, 세상은 그와 정말로 아무 관계도 맺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을 소개하시는 요한복음 14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장 17절에서는 세상이 그를 받지 아니함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과 적대적입니다. 우리는 여기 15절 18절과 19절에서 담론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명심하라. 당신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은 당신을 자신의 것처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당신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든 인간은 세상의 일부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추종자가 될 때 그들은 세상의 가치에 반대되는 가치를 구현한 구세주 가치 체계의 추종자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 다락방 담화에도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16장 20절. 17장 14절과 25절 16 20절은 지금이 너희가 근심할 때라고 말합니다. 실례지만 22 16 20은 세상이 기뻐하는 동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반응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가 근심할 것이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16:20 17장 14절에서 그는 기도 중에 아버지께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곧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추종자로서 우리가 받은 완전한 윤리적 변화로 인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철학에 어긋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다른 삶의 방식이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7:25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비슷한 언어로 세상에 대해 말하는 요한1서 2장의 본문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서신서와 요한복음의 주제적 통일성을 추적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 그 구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 좇아 난 것이 아니요 세상과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그 정욕은 다 지나가느니라 없어져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이 삼중 표현은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삶의 자랑,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관능적인 상태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개념은 모두 하나님의 가치와 상반됩니다. . 요한 1서의 편지는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세상은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윤리적 실체이며 더 나아가 더 나쁜 것은 통치된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합니다. 악마에 의해.

12 장으로 돌아가 여러 본문에서 사탄을 이 세상의 왕자 또는 통치자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주 최근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과 11절에서 이 세상의 왕자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고적으로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추어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과 그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17장 15절에 나오는 기도 중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들을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이 적대적인 가치관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는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서 세상의 통치자로 묘사된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요한 1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온 세상은 악한 자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윤리적 가치인 예수의 윤리적 가치와 마귀의 가치인 세상의 윤리적 가치 사이의 이원론을 매우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받습니다. 세상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세상은 비록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그에게 적대적이며 그 통치자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마도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뿐이라는 내용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모든 적대감과 적개심, 그리고 그 통치자 사탄의 절박한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물이 그를 배반하였을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그가 창조하신 세상에 보내셨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를 버렸으나 어떤 사람은 그를 영접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여전히 그의 자녀가 되도록 권한을 주시고 계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탄생과 그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자주 인용되는 요한복음의 매우 일반적인 구절을 기억하기 위해 돌아가서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6장 8절 12절에서 세상의 생명을 위한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12장에서 46절과 47절에서 다시 사탄이 세상의 통치자가 된 것에 대해 매우 현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이는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12 47.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쳐부수는 대신에 전혀 전례가 없고 예상치 못한 조치를 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품으시고, 다시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여기서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구속 사역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세상에 대한 이 논의를 마무리합니다. 그분은 악한 자의 세력을 멸하시고 인류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자기가 세상의 통치자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께서는 세상의 통치자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텍스트를 하나로 모아 개념 체계로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이신 예수님을 원수를 물리치고 세상에 있는 악을 이긴 유다 지파의 계보로 묘사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잘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이야기를 읽을 때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것에 대한 거대하고 심오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신 세상의 실체 안에는 엄청난 양의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시간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쓸 수도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요한복음에서 영광의 개념에 대해 읽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주기도문이 17장에서 시작되면서 영광이라는 주제가 다시 한 번 대면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의 영광의 배경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방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히브리어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모세는 그것을 더 잘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여 건축하게 하신 성막은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이동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더 완전한 이해, 더 나은 이해,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의 더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원했다고 생각합니다. 영광의 개념을 어떻게 정확하게 정의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영광을 하나님의 존재의 계시된 탁월성으로 묘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 총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은 비록 여과된 방식으로 드러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유한한 피조물에게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탁월함, 이러한 성품, 설명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경외심 속에서 경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탁월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생각되고 말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올 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초기 가르침 중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몇 구절 뒤인 18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해석자로 묘사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사람이 자기를 드러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아주 많은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실제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의 영광은 우리를 성령의 오심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739년에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수 없고 아직 온전히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 전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지키셨던 영광의 자리로 돌아오시면, 성령이 땅에 보내어 예수께서 중단하신 곳을 다시 시작하고 계속해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을 공부하고 읽기 시작하면 다음 부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그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확실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17절 1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는 요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나오는 새 계명의 서문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회고하시며 이렇게 설명하시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 이 세상에서 영광을 돌리게 하였나이다.

요한적 사고의 예수의 입장에서 예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사역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 이 세상에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사역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방식에 대한 응답으로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분은 그에게 영광을 돌려달라고 상호적인 방식으로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이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전의 위치, 하늘의 영광, 내가 사람이 되기 위해, 육신이 되기 위해 버렸던 것을 하늘에서 아버지 곁에 나타내었던 탁월함을 곧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방법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도덕적 탁월성과 가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이 생기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되찾기를 원한다. 이는 예수님의 전 존재가 어땠는지 우리에게 설명하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분명한 본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돕는 자의 역할을 가져오지 않으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이가보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에 따르면 구약의 성전에서 영광이 떠나던 것처럼, 더 이상 영광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16장 14절에는 위로하는 자와 돕는 자와 옹호하는 자와 파라클레토스와 영이 16장 14절에 따라 행하는 일 중 하나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너희에게 알리는 것을 나에게서 받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성령의 역할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진술입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곳에서 영이 스스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새로운 종파의 지도자처럼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님보다 더 큰 교회를 갖기 위해 예수님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새롭게 하여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서 지나간 일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여기에는 그가 너희에게 알리는 것을 나에게서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의 성령의 상대적인 가치와 사역을 이해하기를 원하며, 우리 자신을 은사주의자, 비은사주의자, 오순절주의자 또는 비오순절주의자로

식별하기 위해 도달하는 정도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싶은 것에 대해 이해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사역의 충만함을 수행한다는 것은 여기서 성령의 사역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그분 자신의 실체가 되거나 그분 자신의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성령께서는 영화롭게 하는 것의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시며, 예수와 교회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가치를 두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영에 관한 것이라면, 그의 조상인 우리는 무엇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아마도 그 비유의 마지막 구절과 예수께서 그것에 대해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과 우리가 그분을 위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방식은, 즉 우리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전체에게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성품처럼, 이 모든 열매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단, 또는 우리의 움직임이건 무엇이건,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행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돕는 자가 와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우선시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의 탁월하심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이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면 우리는 영과 일치하여 정확히 동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읽어보면 이 기도와 관련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는 한 가지 방법은 이 장에서 세상이 묘사되는 방식과 제자와 세상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 중 하나는 17장 6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된 장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17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를 나타내었나이다.

그것은 당신의 것이었고 당신이 그것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예수님에게 신자들을 주신다는 개념을 당신이 이해하더라도, 신학적으로 이것에 대해 우리가 가질 용어는 선택의 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정체성을 갖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싶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되기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신문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사명을 찾고, 우리의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찾습니다.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고 세상에서 효과가 있는 것을 찾는다고 해서 세계관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습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가 노력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적인 관점에서 얻습니다. 그렇다면 신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우리의 가치는 내재적 의미, 내재적 의미에서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17:9,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함이니 저희는 아버지의 것임이니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사람들로 가득 찬 이 행성 전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뜻을 행하지도 않고 그분을 밀접히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이 그를 믿을 수 있도록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17장 9절과 같은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신자들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그들을 위해 중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특별한 의미에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추종자들에게 특별한 가치를 두시고 계시며, 예수께서는 특별히 그들을 위해 중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11절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여전히 세상에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머물지 않을 것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들에는 일종의 역설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세상 밖에 있지 않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궁극적인 정체성 가치체계와 삶의 목표를 세상의 가치관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서 흥미로운 다른 진술을 발견했습니다. 17:14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치관, 사명, 오직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해야 했던 목표에 관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특성을 이제 우리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맞추는 데서 가장 큰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을 찾습니다.

고전 17:16에도 예수를 믿는 자는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17장 18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전치사들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할 때, 신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택함을 받았으나 세상에 있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속적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면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동시대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내 생각에 문제는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이 이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천상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세상의 선한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너무 세속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서 하늘의 선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를 데리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것 또는 우리가 전체 교회로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수도원 생활 방식을 따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사절이 세상에 파견될 때 우리는 결코 선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전치사가 매우 놀랍고 그 의미를 숙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할 것이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대한 논의를 마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전치사를 이해하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우리의 통일성 1721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요인. 예수님은 1721년에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대해 적대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추종자들이 그리스도와 서로 연합하여 세상이 자신들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17장 25절에 기도가 끝나갈 무렵, 예수님은 다시 한 번 기도하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더라도 나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압니다. 내가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며, 서사문학에서는 문학의 여러 부분을 결론짓는 내용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 결말 강세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요약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 알게 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하더군요.

내 생각에 이것은 교회 신자들의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지속적인 사역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며, 아버지를 제자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향하신 사랑 곧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 안에 있으라. 다시 말하지만, 내 생각에 이 모든 표현은 신자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성령의 사역을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지속적인 임재로 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락방 담론에 대한 마지막 논평으로서 이 모든 것을 선교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행하신 일과 요한복음 13-17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이 궁극적인 변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양한 교회가 세상에 다양한 특징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 많은 교회가 매우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교회는 정통 교리와 하나님을 바로 세우는 일,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에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교회의 중요한 측면이다. 교회가 세상에 불확실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 그 메시지가 성경에 비추어 명확하고 정확하지 않다면, 그 메시지는 세상에 거의 또는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영적인 은사가 아주 분명하게 발휘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보기에 겸손해 보이는 봉사의 은사 또는 더 극적인 유형의 카리스마적 은사 측면에서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여기서 그것을 실제로 구별하지 못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령님이 분명하게 임재하시는 교회인데, 그걸 정의하고 싶으시다면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그곳에 다니는 교인들이 좋은 대우를 받으며 가족처럼 지내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은 여러분이 갈 수 있고 정말로 교화될 수 있고 여러분의 필요 사항이 충족될 수 있고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그곳에 가면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좋은 것이고, 모두 적절하고, 모두 필요한 것이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예수께서 이 담화에서 직접 강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작별하면서 먼저 사랑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사랑의 상호 관계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의 상호적 성격으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권고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유다가 그룹을 떠난 후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며, 지금은 12명이 아닌 11명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그들에게 내가 떠나고 당신은 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가장 많이 충족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이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해 그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내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당신이 보고 싶은 마지막 일은 교회가 서로를 돌보지 않고 다양한 종파로 분열되거나 심지어 서로 싸우는 개인들로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좋지 않을 것이지만, 그가 말하는 요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의미 있는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보혜사, 보혜사, 보혜사, 성령의 오심을 강조하는 설교의 주요 부분이 끝난 후 제자들을 무장시키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임재를 유지하며 그들이 예수님과 그분 안에 머물러 많은 열매를 맺으라. 그분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복음 13장처럼 그들을 권면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버지께 기도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매우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가 요한 복음에서 이것을 조금 추구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 아버지께서 그분을 사랑하신 방식임을 알 때 더욱 그렇습니다.

아버지 와 아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사랑과 같은 종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신 것이지, 골동품 자동차 클럽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두 모델 T 포드나 그 밖의 자동차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격.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놀랍고 심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세상에 투사하려는 통일은 단지 하나의 특정 원인을 지향하는 종류의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하나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함께 뭉치는 데 능숙한 정당과 클럽, 다양한 유형의 옹호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믿도록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치는 그분과 아버지께서 공유하시는 생명의 공유, 일치, 하나됨의 한 유형입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17장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혁신학에서 특히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창조자와 피조물 구별의 관점에서.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서로간의 연합이 삼위일체 간의 관계를 모델로 삼는다는 것은 거의 이단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관계적 측면, 사회적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방식에 대해 제가 들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용어는 페리코레시스(perichoresis)라고 합니다.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 하는 일은 삼위일체의 다른 위격들과 공유되며 거기에는 내적 통일성이 있고 서로 구별되지 않고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세 신, 즉 삼신론을 믿지 않고, 한 가지 일을 하는 세 위격의 삼위일체 신격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에서 놀라운 점은 이 담화의 북엔드가 기본적으로 신자인 우리에게 서로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연합, 그리고 서로의 복지를 돌보는 것이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신성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고, 타락했고, 이것이고, 저것이고,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 자신이 택하신 사랑하는 사도이자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 이제 이러한 비유를 하시고 우리가 삼위일체 신격의 관계를 따라 우리의 관계를 본받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실 수 있는 이유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한한 형상을 지닌 자들에게 처음부터 형상을 지닌 자들을 만드신 무한한 창조자의 본보기가 되는 방식으로 살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리스도 안의 친구들, 다양한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 함께 교회에 가는 사람들,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 성경공부에 참석하는 사람들, 이웃 등 어떤 관계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알고, 여기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감사하며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쩌면 제가 그 점을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아버지와 아들께서 나타내신 동일한 내적 심오한 일치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맥락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되는 100마일 이내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지속적인 임재가 통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삶에 계시고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더욱 온전히 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David Turner 박사와 요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18회 고별 담화, 슬픔에 대한 가르침, 마지막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6:16-17:26.